

## 목포 1세기의 역사와 근대건축

History and Modern Architecture from the Last Century of Mokpo

김지민/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Ji-Min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엮어 나가고 있는 '지역 건축탐방' 이란 테마기행의 글을 통해 그간 여러 차례 각 지역의 건축을 접할 수 있었다. 춘천은 춘천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그들의 역사와 특이성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과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성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80년대부터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로 인해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이 점차 반감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한반도 서남쪽 끝에 자리한 목포도 언제부터인가 신도시, 신외항, 산업도로 등의 단어가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짜보선창', '뒷개' 등 이 도시 고유의 언어가 어색해져 가고 있다. 과연 21세기에도 한국의 지역성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인가.

### 근대화 이전의 목포

흔히 목포의 역사를 개항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목포가 될 수 있었던 제일 빠른 시작이 바로 그때였고 또한 아직까지도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개항전의 목포는 한국의 어느 해변가처럼 반은 농사짓고 반은 고기잡는 그런 조그마한 촌락이었다.

개항이전의 목포 역사는 크게 ① 선사 이래 고려 말기까지의 시기와, ② 목포 만호진(萬戶鎭) 설치 이후부터 개항 직전까지의 시기로 대별할 수 있는데 ①의 시기는 고대문화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목포라는 지역의 역사적 실체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다. 그렇지만 양호한 해로를 사이에 둔 도서(島嶼)와 해안지역, 그리고 내륙으로 길게 만입되는 영산강 유역에 위치했던 관계로 물자는 물론 제반 문화의 이동 루트로서 이 지역의 위치는 크게 중요시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목포 일대는 조선초기의 수군 만호진(水軍 萬戶鎭)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헌기록에 오른다. 세종실록 권 58, 14년(1432) 10월 을사조(乙巳條)에



〈그림1〉 목포진(木浦鎭)지도(19C중~말). 우측의 아사(衙舍)에서 개항초 일본이 영사업무를 보았다.

"본도의 수영(水營)을 목포에 옮겨 배치하고 목포의 병선을 황원남면(黃原南面)의 주양(周梁)으로 옮겼다"고 되어있다. 그후 세종 21년(1439) 4월 임진(음력 4월 15일)에는 무안현(務安縣)의 목포가 왜적침입의 요해처이므로 만호를 파견하고 병선을 주둔해야 한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역사적인 목포 만호진이 설치된다. 따라서 목포의 역사는 개항(1897년) 100년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만호진이 설치됐던 15세기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도 좋을 것이다. 만호진이 설치됐던 위치는 현재의 목포시 만호동 일대의 높은 구릉지이다. 〈그림1〉은 일제에 의한 개항을 불과 얼마 앞둔 19세기중~말기 사이에 제작된 목포진(木浦鎭) 만호진(萬戶鎭) 지도이다. 성곽안에는 객사(客舍)를 비롯하여 아사(衙舍), 군관청(軍官廳), 사부청(射夫廳), 작청(作廳) 등의 건물이 보이고 성의 북쪽으로는 유달산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삼학도가 그려져 있다. 아사는 개항 당시에 몹시 허물어져 있었으나 일본인들이 이곳에 일장기를 달고 10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임시 영사관 건물로 사용하였다.

목포 만호진은 고종 32년(1895년) 7월 15일 칙령 제141조 의해 폐지되면서 영원히 목포땅에서 전통적 조선식 관청은 사라진다.

### 개항: 1897년

한국은 19세기 후반 타율적으로 개항(부산: 1876년, 원산: 1880년, 인천: 1898년)이 되면서 서구건축의 유입이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목포 역시 189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시형성과 함께 서구건축을 접하게 됐다. 개항 당시 목포 모습은 만호진이 유일한 관청이자 제일 큰 건물이었



(그림2) 개항초기 목포지도

고 한국인들은 주로 현재의 북교·죽교동(당시 쌍교리; 雙橋里) 일대에만 모여 살았다(약 90여호).

청일전쟁으로 사기가 충만한 일본은 고종 31년(1894) 12월에 전라, 경상 양도의 서남부를 순항하며 새로운 개항장을 물색하였다. 2주간의 조사 끝에 목포항이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그 까닭은 ① 영산강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 소비시장까지 기선으로 화물의 운반이 가능하며, ② 나주, 광주 등의 큰 시장을 배후에 끼고 있어 화물의 집산장으로 하기에 적합하고, ③ 전라도의 쌀을 운반해 들어오기에 가장 편리한 창구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목포 개항의 목적은 처음부터 순전히 일본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1853년 일본은 미국의 대포소리에 놀라 개항의 문을 열었고 메이지정부는 재빠르게 사회를 봉건사회에서 근대산업사회로 전환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후에 초기 자본국가가 한 듯이 조선에 1876년 2월에 군함 7척을 이끌고 남양만에 나타나 위협포격을 가한 뒤 인천항과 원산항을 개항시켜 재미를 보고 있던 중 1894년 청일전쟁으로 사기가 충만한 일본은 다시

목포를 개항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반농반어(半農半漁)의 100여 호 가구가 모여 살았던 조그마한 포구가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 주인 잃은 목포, 그 반세기

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1930년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은 당시 주인 잃은 이 나라의 실운을 목포라는 무대를 통해 토해낸 한맺힌 가요이다. 당시 목포는 전국 10위내에 드는 화려한 근대도시로 탈바꿈하였지만 주인 잃은 도시는 결국 '목포의 눈물'을 쏟아냈던 것이다.

#### 1) 개항 ~ 1910년

개항이 일본에 의해 주도 되었기에 1897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목포 개발이 일본인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영향으로 개항당시 2,806명(한국인; 2,600명, 일본인; 206명)이었던 인구가 1910년에는 10,655명(한국인; 7,076명, 일본인; 3,494명, 기타외국인; 8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 목포의 주요 거주지는 각국 조계지구(租界地區; 대부분은 일본인 거주지, 매립지, 면적 1km)내의 계획 시가지와 쌍교동방면(한국인 거주지, 산기슭, 면적 11.44km)의 비계획 시가지이었다. 이 두 거주지는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도로에 의해 상호 연결되었고 한국인의 주 취업 장소(조계지장정에 동 지구내에는 한국인 거주 불허)가 조계지구 이어서 조계지구 주변이 새로운 집적지로 형성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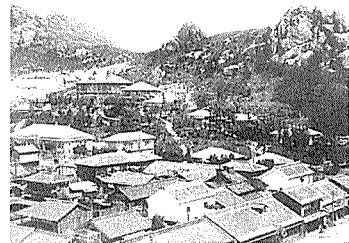
당시의 대표적인 시가지인 각국 조계지구는 그 시가지 형태에 있어 인천조계지(仁川租界地)의 영향을 받았으며, 항구개발위주의 시가지, 신도시로서의 근대적 기술(격자형 도로망, 사회기반시설인 상수도, 공원설치)을 적용한 시가지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인의 쌍교동지구(지금의 북교동부근)는 자연 지형을 따라 자연 형성됨으로써 그 형태가 불규칙하였으며 사회 기반시설도 거의 전무하였다. 가구 및 획지분할은 조계지구의 경우 60~80×60~80m의 사방형 필지로



유달산에서 바라본 시가지(1930년 경). 중앙의 높은 구릉이 만호진 자리.



일제시대 남해안 모습. 뒷쪽의 3개 섬이 삼학도이다.



유달산 남쪽기슭아래 시가지 모습. 좌측 2층건물이 목포영사관.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은 조계지장정(租界地章程)에서의 경매 및 분할 금지 규모로서 필지당 500~1000㎡ 이상일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인 지구는 불규칙 조밀(필지당 100~200㎡)하였다.

이상과 같은 당시 목포의 시가지 확장은 방조제 축조와 함께 간척지 매립공사에 의한 것이었다. 즉 목포의 도시구축은 특수한 자연지세로 인해 간척과 매립의 반복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침수 등이 잦다. 특히 시가지 대부분이 빨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등 단순구조물 공사에까지도 강제말뚝을 박아야 하며 특히 지하층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1910 ~ 해방

한일 합방이후 일본의 세력(일본인 인구: 개항전 206명, 1910년 3,494명, 1923년 7,021명)이 급격히 신장하면서 목포의 시가지 확대는 급속히 늘어난다. 1910년대의 온금동, 북교동 일대의 개발, 1924년의 양동, 남교동 일대의 매립, 이어서 역전앞 호수매립(1923~1923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국도 1호선 개통(1911년), 호남선 철도 개통(1913년)등도 도시개발을 급속히 촉진시켰다. 이로 인해 각종 공공건물, 상업건축, 학교, 주택 등이 서구 또는 일본 양식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이후 목포의 권역은 연안항로가 그 전보다 더욱 발달하여, 제주도는 물론 영암, 무안, 나주, 장흥, 완도, 진도, 영광군 등까지 그 권역이 확대되었다. 육로의 경우도 버스노선의 확충으로 영산포, 무안, 함평, 영암군까지 확대되었다.

목포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1934년 당시 8,771명으로 전체 55,667명의 15.7%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사회기반시설이 완비된 구조계지구와 역전의 신개발지이었고 주거·상업·공업 등의 용도 혼재는 있었지만 평균거주밀도 120人/ha로 저밀(한국인 거주지역의 평균 거주밀도는 214人/ha)하였다.

1937년은 장래 시가지 발전에 영향을 미친

법정계획으로서 「목포시가지계획(木浦市街地計劃)」이 수립된 해였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1965년을 목표로 한 목포 인구는 14만명으로 잡은 향후 30년의 장기계획이었다. 현재까지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는 가로망계획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중앙로, 1호광장 - 죽산주택단지, 2호광장 - 동국교 - 원산정, 3호광장 - 경찰서 - 백련동 - 북항을 잇는 간선노선은 당시의 계획 그대로를 개설한 것이다.

## 3) 해방이후 ~ 1970년

해방이후 다시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의 모든 도시가 그랬듯이 목포 역시 도시발전이 없었다. 한편 전쟁이후 두드러진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삼학도(三鶴島) 항만개발 사업(1955~1969)이었다. 1940년경 일본인이 세운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추진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업은 결국은 목포의 상징이요 전설적인 3개의 섬들이 내륙과 연결되면서 삼학도의 아름다운 풍광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에 들어 뜻있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삼학도를 복원하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자는 매우 뜻 있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전국적으로 1960년대는 '개발'과 '도시화'가 시작한 시기이다.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산업구조가 바뀌고 그 영향으로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를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급진전되었다. 하지만 목포는 상경 경제개발에서 제외되어 인구의 전국 순위는 1966년에 16만2천명으로 8위, 1970년에는 17만8천명으로 전국 9위, 1967년도 항구물동량은 전국 7위로 목포의 상대적 지위가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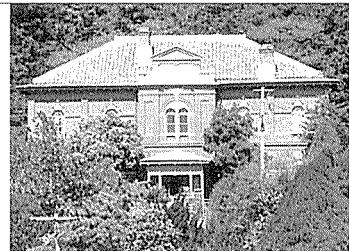
한편 인구 증가 규모는 적었지만 세대수 증가, 가치관 변동, 기존시가지내의 과밀화, 행정구역확대(1962), 중앙로 개설(폭 25~30m, 1961~1972), 목포시가지계획 및 목포도시계획의 수립(1937, 1967) 등으로 시가지는 외곽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특히 중앙로의 연변을 따라 매립(1925~1932)한 용해·용당지구의 개발이 본격화(1968~1975)



일제시대 동해안 전경



옛 목포역



목포 일본 영사관

되었다. 이 지구는 현재 목포 MBC 방송국이 위치한 지역(3호 광장 주변)으로 목포역 앞이 구 시가지 계획에 위한 목포 제일의 도심(C.B.D)이라면 이곳은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목포 제2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붉은 시멘트 기와가 올려진 ‘ㄱ자형’ 목조주택들이 이 무렵에 많이 건립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거단지이다.

#### 4) 1970 ~ 현재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화학 공업 정책이 수립되어 신항 공업도시(포항, 울산, 구미)가 생겨나고 농촌에 까지도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구조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목포는 중화학 공업은 물론 도시간 고속 교통망 계획에서조차도 제외됨으로써 1960년대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인구는 인근 도서(특히 신안군 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아 1975년에는 193,000명으로 전국 12위, 1980년에는 222,000명으로 14위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주거지를 필요로 하게 되어 삼학도 IBRD 주택단지(1976~1978, 14ha, 721호)개발, 용당 APT 단지(1976~1978),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목포 최초의 신항해 APT 단지(1978~1980)가 개발되었다. 이중 삼학도 주택단지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설계된 단지로서 평가되었다. 가구 분할은 그 크기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25~30m×80~110m이며, 전 지구 모두 2열식 필지배열이 특징이다. 한편 필지 분할은 보통 A Type(12~13×13~14m, 단독주택), B Type(7.5~8×13~14m, 연립주택), C Type(13~14×16~17m, 자유입지)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다양한 시가지 형상을 유도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는 제5차~제7차 경제개발 계획(1982~1992)을 비롯하여 제2차~제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1981~1991)이 실시되었던 시기이다. 하지만 목포는 그러한 계획에 의한 도시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구 역시 1993년도 227,000명으로 1980년도와 달라진게 없으며 현재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 시기는 목포의 큰 상거래 대상이었던 신안 도서지역민이 목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광주나 서울로 거래 내지는 이주를 하여 특히 상대적으로 광주가 커지면서 더욱 목포가 위축되게 되었다.

한편 목포의 쇠퇴 내지는 목포권의 축소에 대한 지역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었다. 대불공단과 산정 농공단지 유치(1989), 국제 자유도시건설 구상과 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자매항체결(1992, 국제화), 목포가 “L”자 국토축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국토축의 수정요구(1989), 목포인근의 무안군 삼향면으로 도청이전계획(1994~1995) 등이 추진되었고, 아울러 그 터전이 되는 시행정구역의 확장 움직임이 몇 차례 행하여졌다. 즉 영암군 삼호면의 목포시 편입, 무안군과의 시군통합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이 되었다. 이 외에도 무안국제공항, 신회항, 호남선 복선화 등의 조기 건설(착공)을 요구하였지만,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인 1998년도부터 그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시기 목포에서 큰 도시발전의 계기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당 신시가지(279ha, 1989~1995) 개발이다. 목포시가 공영개발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지구로서 택지개발을 통해 대불국가공단의 배후 시가지 조성 및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 지구는 어느 도시의 신도시처럼 중심부는 상업지역, 그리고 주변은 APT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변의 APT지구만 건설이 되어 있을 뿐 중앙부는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시청을 이곳으로 옮기기로 했던 것이 백지화되면서 그 개발 속도가 더욱 느려지고 있다.

#### 근대 건축

현존하는 목포의 근대건축 등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달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옛 목포영사관(현 목포 문화원)이다. 이외 많은 건축물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도시계획사업, 건물의 효용성, 그리고 심각한 거부감 등 때문에 상당수가 대부분이 헐리고 이제는 10여 곳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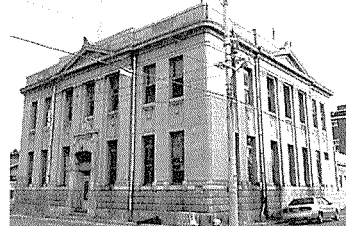
〈표1〉은 그 현황을 정리한 것이며 이 또한 언제 헐리게 될지 모른다. 〈표2〉는 현재는 훼손되고 없는 일제시대에 건립된 주요 건축물이다.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



호남은행 목포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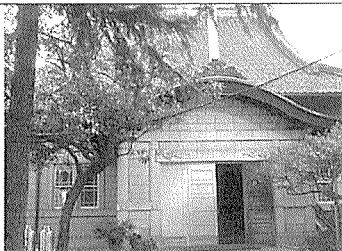
동양척식 목포지점

〈표1〉 근대건축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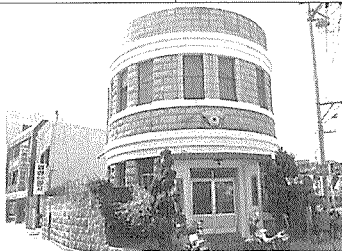
건 물 명	건립년도	소 재 지	비 고
목포일본영사관	1900년	목포시 대의동2가 1-5	사적제 289호, 2층 벽돌조, 현 목포문화원
호남은행 목포지점	1925년	목포시 상락동1가 10-2	2층 벽돌조, 현 조흥은행목포지점
동양척식(東洋拓殖) 목포지점	1920년	목포시 중앙동2가 6	2층 석조, 사용안함
청년회관	1930년경	목포시 남교동 80-1	단층 석조, 현 임미뉴엘제일교회
동본원사(東本願寺) 목포별관	1920년	목포시 무안동 2가 4	단층 석조, 현 목포중앙교회
목포양동교회	1910년	목포시 양동 127	단층 석조, 현 목포양동교회
목포정명여자학교	1910년경	목포시 양동 86	단층 석조, 현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목포공립심상소학교	1910년	목포시 유달동 8	현 유달초등학교 강당(1929년)

〈표2〉 훼손된 주요 근대건축물 목록

구 분	건 물 명	건립년도	훼손년도	소 재 지	비 고
공 공	목포경찰서	1900년	1983년	목포시 대의동	현 초원호텔 터
	목포우체국	1900년	1950년대초	목포시 대의동 2가 1	6·25때 소실
	부산세관 목포지점	1908년	1968년	목포시 산정동 1500	현 목포세관 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점	1912년	1973년경	목포시	
	목포역	1910년	1979년	목포시 호남동 1-1	현 목포역 터
	전남 수산시험장	1926년	1991년	목포시 항동 6-12	
	곡물 검사소	1929년		목포시	
	전매국 목포출장소	1931년		목포시	
	부립 목포병원	1919년		목포시	
	파출소 3곳	1930년대	1992~4년	목포시 남교동, 대성동, 산정동	남교·대성·산정파출소
교 육	목포공립보통학교	1928년	1970년대초	목포시 북교동 1	북교국민학교
	목포공립상업학교	1922년	1987년	목포시 대성동 40-1	목포여고
	목포공립고등학교			목포시	
상 업	十八은행 목포지점	1916년		목포시	
	조선은행 목포지점	1924년	1988년	목포시 수강동	현 한국은행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	1910년	1997년	목포시 행복동2가 2	현 제일은행 목포지점 터
	목포 금융조합	1929년		목포시	현 중소기업 은행 터
	목포 무진주식회사			목포시	
	목포 곡물상조합			목포시	
	목포전등주식회사			목포시	
	목포극장	1926년	1995년경	목포시 무안동	
평화극장	1927년		목포시		



동본원사 목포별관



남교 파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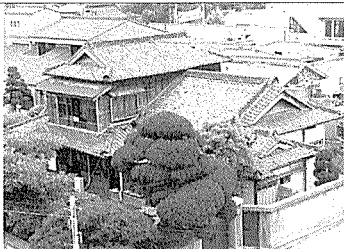


문익수 가옥 안채

〈표 3〉 주거건축 목록

구분	가옥명	건립년도	소재지	비고
한국인가옥	문익수 가옥	1908년	목포시 북교동 137	안채, 행랑채
	심복주 가옥	1913년	목포시 북교동 131	안채, 아래채
	이돈채 가옥	1935년	목포시 북교동 71-1	안채
	김상배 가옥	1935년	목포시 북교동 155	안채, 아래채
	김상규 가옥	1940년대	목포시 북교동 102	안채, 아래채
	홍순정 가옥	1940년	목포시 북교동 96	안채
	이선만 가옥	1935년	목포시 북교동 36	안채
	박성준 가옥	1934년	목포시 북교동 103-2	안채
	김○○ 가옥	1941년	목포시 북교동 224	안채
	박화성 가옥	1930년	목포시 용당동 986	박화성 작품활동
일본인가옥	이춘진 가옥	1910년경	목포시 중앙동3가 1-3	2층 목조
	이삼훈 가옥	1920년대	목포시 중앙동3가 5	2층 목조
	김성대 가옥	1910년대	목포시 중앙동3가 6	단층 목조
	중소기업은행 관사	1920년대	목포시 온금동	단층 목조
	시장관사	1935년	목포시 온금동4-1	단층 목조
	김태정 가옥	1910년대	목포시 경동2가 6	우편국 관사, 단층 목조
	시습슈퍼 가옥	1935년	목포시 중앙동2가 8-4	2층, 상가+주거
동아약국 가옥	1920~30년	목포시 행복동2가 1-8	2층, 상가+주거	

〈표3〉은 일제시대에 건립된 현존하는 주요주거건축 현황이다. 아쉽게도 당시에 지어진 많은 가옥들이 1970년대 이후 훼손되어 원형을 간직한 가옥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서민 주택은 더욱 그렇다. 당시 일본인은 자기들 거류지(居留地)인 현재의 중앙·유달동 부근에, 그리고 한국인은 외국 거류지에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개항전에 마을을 이루었던 북교동과 이외 남교동, 죽동, 온금동, 서산동 등에 주로 모여 살았다. 이들 마을은 중앙·유달동과 달리 계획된 도로 체계에 기반을 둔 주거지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골목길 마을”로 확장되어졌다. 따라서 현재 개항이후 일제시대의 주거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개 지역에 불과하다.



이춘진 가옥



이삼훈 가옥